

공공수역 안정적 수질보전 총력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완료

장수군, 2040년까지 하수도분야 총사업비 1404억원 투입

장수군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2040년 목표로 마련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득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하수도정비의 최상위 행정계획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5년 마다 하수도법에 따라 기본계획 타당성을 검토해 재수립하게 되는데, 장수군은 전 차년도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 용역을 착수하고 18개월 가량 기초 조사 및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군은 올해 1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 이달 18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

기본계획은 2040년 목표로 5년단위 계획을 수립했으며 총사업비 1,404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1단계 목표인 840억원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총 사업기간 주요사업으로는 불명수 저감사업에 923억원, 관로 정비사업에 284억원, 소규모공공하수도 확충 및 정비사업에 197억원이 투입된다.

불명수 저감사업에는 공공하수처리 구역별 총 73.3km에 대해 관로 및 맨홀 등에서 유입되는 불명수를 저감함으로써 관로 통수단면 확보 및 처리장 유입수를 최소화 시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목표다.

하수관로정비사업에는 오수관로 정비 8.9km, 우수관로 정비 10.3km로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하수도 확충 및 정비사업은 관내11개 마을에 대하여 처리장 증

설 70m/일, 관로 신설 16.4km를 추진함으로써 하수도 보급률을 기존 83.4%에서 86.3%로 끌어올려 전라북도 군단위 평균(74.4%) 이상의 하수도보급률을 제공 할 계획이다.

군은 정비사업을 통해 불명수 등을 최소화하고, 하수도 보급률을 높임으로써 주민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사업비 투자를 줄임으로써 관로 통수단면 확보 및 처리장 유입수를 최소화 시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목표다.

장영수 군수는 "하수도시설의 안정적 처리와 운영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최상의 하수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하수처리시설 등 공공수역의 안정적인 수질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75세 이상 어르신 3841명 대상 화이자 백신

진안군은 지난 21일 75세 이상 어르신 3,84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화이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앞서 예방접종센터에서 지난 4월 1차 예방접종을 마쳤으며, 접종대상자 4,519명 중 1차 접종 86%, 2차 접종 85%라는 높은 접종률을 기록했다.

군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읍·면 담당자들의 협조 하에 이송버스 3대를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백신 접종 대상자들이 예방접종센터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홀몸 어르신들의 백신 부작용을 신속하게 알아채기 위해 공직자들과 홀몸 어르신들을 매칭 해 1일 3회 이상 전화 통화를 통한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는 읍·면 직원에게 연락을 취해 자택을 직접 방문토록 하게 하는 등 백신 접종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이뤄졌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60~74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사전예약을 받고 있으며 21일 기준 사전예약률은 ▲70~74세 80.8% ▲65~69세 76.8% ▲60~64세 60.5%로 집계됐다.

이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되며 접종 장소는 관내 위탁의료기관 7개소이다.

또한 30세 미만은(1992.12.31.) 6월 중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타 지역에 비해 백신 접종률과 사전예약률이 높은 편이다. 이는 군민 모두가 코로나19의 종식을 염원하며 적극적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을 확보해 코로나19 종식으로 일상생활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17일과 18일 양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4건에 1억8,000여만원의 삭감, 본예산 대비 249억8,000여만원이 증가한 4,814억6,000여만원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김광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사업 추진

관외 중·고등학교 졸업한 대학생까지 확대

진안군은 올해부터 진안군 대학생 대상으로 생활안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안사랑장학재단에서 추진하던 '고향사랑 장학금(생활비)' 사업을 종료하고, 올해부터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의 '고향사랑 장학금'은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에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사업'은 관외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까지 확대 추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군은 앞서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비 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완료했다.

지원 내용은 학년당 1회(휴학하지 않은 경우 1~4학년까지 매년 신청가능), 최고 1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신청자격은 관내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자는 공고일 현재 진안군에 1년 이상(단,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는 공고일 현재 진안군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

터 제4호까지 규정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평점 평균 C 학점(70점) 이상이어야 한다.

공고예정일은 2021년 9월 1일로 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생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대상자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사정에 대한 애郷심을 고취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무주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2021. 5. 22. 기준 출산 예정 또는 출산)으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주민이 대상(변경 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해당 산모와 신생아는 산모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정서적 지지 등의 건강관리와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1일 9시간)를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이다.

서비스 이용 금액은 태아유형과 출산순위, 소득구간,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표준형일 경우 산모 본인 부담 금액은 단태아의 경우 11만8,400원, 쌍태아는 1명의 인력 지원 시 15만2,000원, 2명 지원 시에는 20만7,200원이다. 2명의 인력이 지원되는 산태아 이상의 경우는 23만6,800원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고품질 은퇴 도시민 영농·생활지원 대상자 모집

무주군이 영농·생활지원비를 지원 받아 무주군에 정착할 고품질 은퇴 도시민에 대한 추가 모집(신청순)에 나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군은 은퇴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무주 관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영농·생활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만 65세 이상자이면서 무주군에 전입한지 3년 이내(2018. 1.1 이후)의 귀농·귀촌인이 대상자다.

군으로부터 선정된 대상자는 영농활동 및 텃밭 가꾸기에 필요한 소모성 영농기자재, 주거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소모성 집기류(장판, 도배지 등)에 필요한 구입비를 지원한다.

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 비롯해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춰 읍·면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 귀농귀촌정책심의회에서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비롯해 귀농연도, 농업교육이수 실적 등을 평가한 후 추가 대상자 5명을 선별하게 된다.

앞서 군은 지난 4월까지 5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영농기자재비와 주거 생활 환경개선키트로 가구당 135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 대상지 선정

진안군은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춘성 진안군수

군에서 시행되는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은 한국판 뉴딜사업의 3가지 구성요소(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모두 갖춘 사업으로서 디지털 물류 체계 구현을 통한 농촌의

물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군은 앞으로 5억1,7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운영방법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택배 물품을 수거 해주는 디지털 물류 시스템을 활용해 운영하며 지역 마을 회관을 거점으로 택배 보관함을 설치하고 순회 집화 서비스를 통해 농가에서 직접 발송지까지 가져와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화폐 등과 연계한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계획이다.

군은 7월 중 시범적으로 3개 읍·면(진안읍, 마령면, 주천면)을 대상으로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추진 할 계획이며, 단계적으로 ▲어르신 돌봄서비스 ▲로컬푸드 납품지원 ▲주민 간 식자재 나눔 등 생활 안전서비스 연계해 진안군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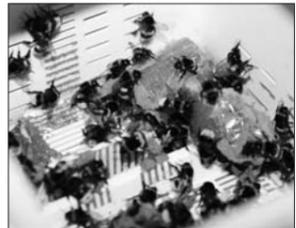
전춘성 군수는 "디지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농가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농산물 택배 배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군의 신선한 농산물을 빠르게 전국 각지로 보낼 수 있게 돼 소비 및 유통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시범사업으로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 기반 조성

장수군은 양봉 지역특화상품 개발을 위해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에 적합한 표준 양봉사 시설과 채집 및 회수, 포장 기술 등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벌꿀생산 위주의 양봉산업에서 탈피해 스틱형 벌꿀, 프로폴리스 등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으로의 전환 및 가공기술 확대 등 농가 의식전환에 중점을 두고 시범농가를 대상으로 양봉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비 4,000만원(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을 투입해 관내 100명군 이상 양봉산물 생산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1개소를 선정,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스티어링



벌꿀, 화분, 로얄젤리, 프로폴리스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한다. 군은 꿀벌생산 외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으로 양봉농가의 소득향상과 고품질 안전 양봉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확보와 양봉산업이 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